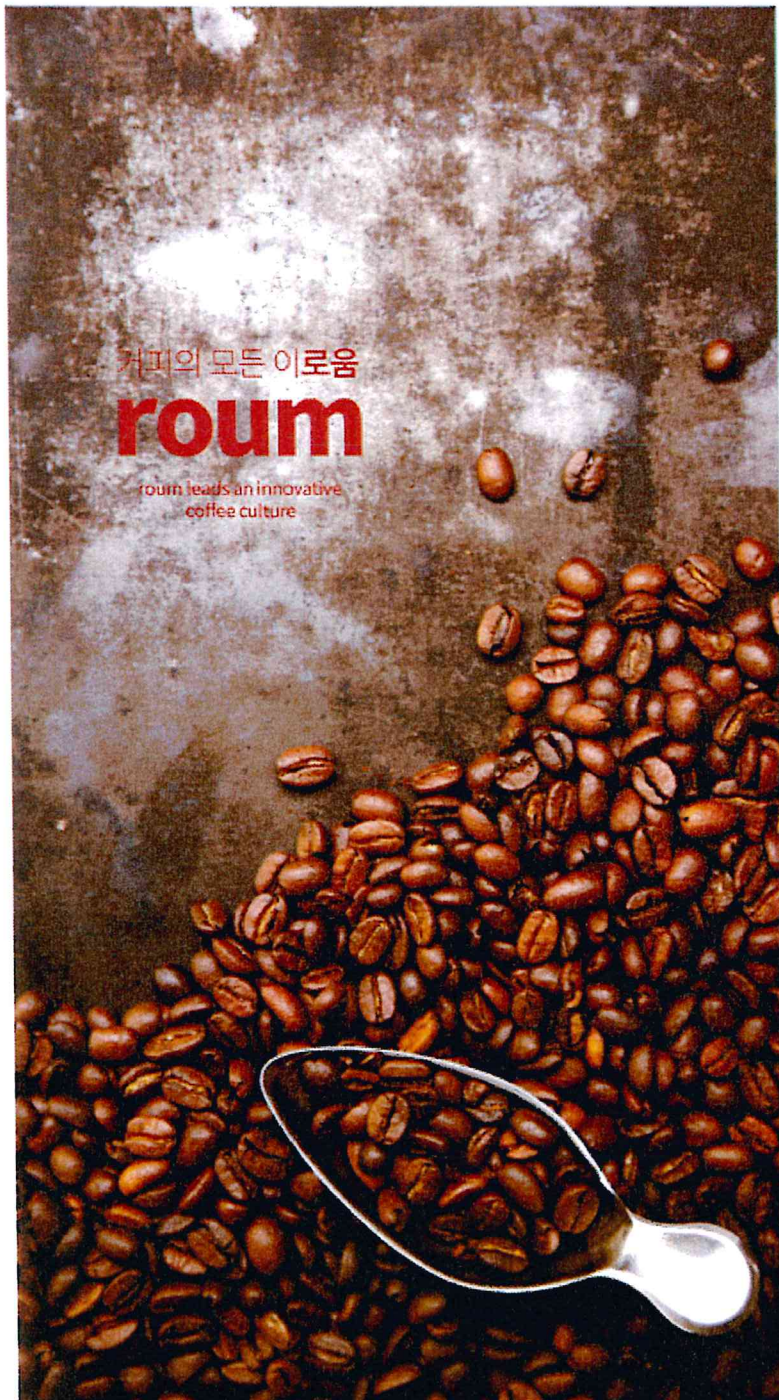


##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마케팅으로 ‘커피문화의 대중화’ 선도(先導)”

“커피의 이로움’이란 창업정신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파수꾼”  
“고객 사랑의 실천을 위해 제품에 대한 올바른 고집과 유연성을 잃지 않을 터”



“2012년부터 커피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해 왔다”

“커피의 모든 이로움’이란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2012년 개인 사업자로 시작된 로움(ROUM)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마케팅으로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Easy too Easy’ 전략으로 카페창업에 있어 현실적인 대안과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카페를 창업할 수 있도록 커피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해 왔다. 지금도 오롯이 이러한 경험을 녹여내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그 결실로 2014년 중국에 진출하여 건실한 파트너십으로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에 자리하고 있는 (주)로스팅컴퍼니로움(Roasting Company Roum Co., Ltd) 이동희 대표가 ‘커피’를 화두(話頭)로 던지면서 기저를 반갑게 맞이한다.

2012년 창업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이 대표는 “2012년에 강릉에서 카페장비와 재료판매 A/S 유지 보수 회사인 로움을 개인사업자로 창업했다. 이후 제조업인 커피로스팅 사업과 카페창업, 컨설팅 사업으로 확장했으며, 누구나 쉽게 카페를 창업할 수 있도록 대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1월 15일 (주)로스팅컴퍼니로움으로 법인화시켰다”라고 알려준다.

“중국·라오스·베트남·태국… 해외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중국의 진출이라?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4년에 진출해 30개의 ‘눈꽃 빙수’가 명점을 개설했다”고 즐겁게 되뇌면서 “현재 중국은 물론 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도 해외진출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중국 텐진(天津)의 기업체 델리푸드(德利福)와 투자 및 업무협약을 맺어 중국에서 처음으로 퓨전 한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9월 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한 라오스 최초의 정상 수행 경제사절단의 일행으로 한-라오스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했다. 당시 라오스 SNK와 20만 달러 규

“2012년 강릉에서 카페장비와 재료판매 A/S 유지보수 회사인  
**로움(ROUM)**을 개인사업자로 창업했다.  
 이후 커피로스팅 사업과 카페창업, 컨설팅 사업으로  
 확장했으며 금년 1월 (주)로스팅컴퍼니로움으로 법인화시켰다”



모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Vientiane)에 한국 전통 디저트 카페 인 '빙고 1호점'을 올해 11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안에 2~3호점을 오픈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당당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열정 탓일까?

이 대표는 이미 벤치기업 인증을 2016년 2월에 획득하였으며, 상해국제프랜차이즈박람회(3.25~27)에 '눈꽃 빙수'를 브랜드로 독자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2016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선정업체로 지정되었으며, '눈꽃 빙수 파우더'를 론칭(launching)하는 한편, 중국의 계남(濟南)국제 식품박람회(5.20~22)에 '눈꽃 빙수 파우더 4종'으로 참가하였다.

아울러 6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 무기질 보충 '더치 커피(Dutch coffee)' 정형화 기술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내 2,0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키스키티'와 협업으로 계남, 상하이, 충칭 등 주요 도시의 '키스키티' 매장 안에 '로움 설빙 카페'를 개설하고 곧 파우더 공급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눈꽃 빙수'는 디저트 음식 사업이다”

'눈꽃 빙수'는 과연 무엇일까?

이 대표는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디저트 음식 사업이다. 다이어트와 소식(小食)을 위한 정식(定食)은 물론 에피타이저(appetizer)를 즐기는 공간의 제공, 끼니 사이의 간식거리

경고고등학교 졸업  
 강릉영동대학 졸업  
 한국폴리텍 강릉대학 정보통신시스템 수료

바리스타 지도자 자격증 취득(한국커피협회)  
 홈 바리스타 마스터 자격증 취득(한국커피협회)

전강릉KBS 촬영팀 음무  
 전강릉소재 커피박물관 기획실 팀장 근무  
 전강릉커피협회의 이사  
 전KTCM(한국토털커피머신) 이사

(주)로스팅컴퍼니로움  
 이동희 대표



로서의 활용, 토핑(topping)을 통한 메뉴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음식이다"라고 알려주면서 기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또한 "눈꽃 빙수"의 비밀은 고운 얼음에 있다. 일반적인 빙수에 얼음을 깔고 우유와 팥을 넣으면 그런대로 빙수가 되지만 이러한 빙수는 빙질이 굵으며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눈꽃 빙수'는 고가인 만큼 입에서 사르르 녹는 빙질을 맛 볼 수가 있다", "기존의 우유와 연유, 물을 섞어 만든 '눈꽃 빙수'는 비율과 우유의 품질에 따라 맛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회사에서는 손쉽게 제조가 가능한 '눈꽃 빙수 파우더'를 개발하였다. 다른 부재료 없이 물과 파우더만으로 빙수의 맛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리얼 초콜릿, 한국산 고급 말차 등 우수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눈꽃 빙수'의 품질을 한층 높였

다", "중국의 제남국제식품박람회(5.20~22)에서 선보인 '눈꽃 빙수 파우더 4종'은 밀크빙수를 비롯해 초코빙수, 요고(Yogo)빙수, 녹차빙수 등 4종이다"라고 설명한다.

**"원두커피 제조·카페장비의 판매... 등이 핵심사업이다"**

(주)로스팅컴퍼니로움의 주요한 사업내용은 무엇일까?

이 대표는 "원두커피 제조 및 파우더 4종 생산을 비롯해 카페장비의 판매 및 렌탈(rental), 카페용품 판매, 카페창업 컨설팅 그리고 '바리스타(barista) 아카데미'가 핵심이다"라고 알려준다.

원두커피 제조는 어떤 특성을 지녔을까? 이 대표는 이렇게 자랑을 한다.

"커피농장에서 수확한 생두를 최적비율로 블렌딩(blending)한 최



**"주요한 사업내용은 원두커피 제조 및 파우더 4종 생산을 비롯해 카페장비의 판매 및 렌탈, 카페용품 판매, 카페창업 컨설팅 그리고 '바리스타(barista) 아카데미'가 핵심이다"**



고의 풍미를 자랑하는 스페셜 로스팅(roasting) 원두인 '골든 빈 블렌드(Golden Been Blend)'를 우선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는 디지털 로스팅 시스템장비를 활용해 1g의 오차 없이 균일한 로스팅 온도 등 최적의 조건을 맞춘 원두이다. 또한 주문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생두를 주문접수와 동시에 로스팅을 한다. 이를 위해 수입일로부터 3개월인 최대 생두보관일과 로스팅 직후 1일 이내 배송시스템을 적용한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매년 2회 자가 품질검사와 (사)한국커피협회의 등의 품평을 거친다"라고.

더불어 이 대표는 카페장비의 판매 및 렌탈, 유통 A/S에 대해서 "KTCM(한국토빌커피머신) 법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장비를 직수입 또는 MOU로 저렴하게 유통시키고 있다. 아울러 커피 장비의 렌탈 그리고 커피머신과 그라인더, 믹서, 워터 디스펜서 등의 A/S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각종 빙수기계도 판매 및 렌탈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카페용품의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베라(VERA)와 제휴해

4,000여 가지 커피용품과 식음료 재료를 유통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맞춤형 주문으로 원스톱(One Stop)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페 또는 바(Bar)의 용품과 식음료 재료 또한 도매가로 제공하고 있다. 창업주를 위한 최초 도입품목을 별도로 세트화 시키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카페창업 관련 컨설팅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까?

이 대표는 "카페창업 관련 컨설팅은 크게 국내(레스토랑, 브런치 카페)와 해외(퓨전 한식, 디저트 카페) 두 가지로 구분되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창업 컨설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때문에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판매상권 분석, 메뉴 결정, 최신 트렌드 등

● 연혁

- 개인사업자 로움 설립(2012)
- (사)한국신학연합회 주최 기술개발 및 도약단계 합격(201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특허출원 2건(2015)
- 원두커피 '골든 블렌드' 제조허가 및 출시(2015)
- 고품질 간편형 커피 '슈피노바' 프로젝트 완성(2015)
- (주)로스팅컴퍼니로움 설립(2016.1.15)
- 벤처기업 인증 획득(2016)
- 상해국제프랜차이즈박람회(2016.3.25~27) '눈꽃 빙수' 브랜드로 독자 참여(2016)
- '눈꽃 빙수 따우더(4종)' 출품(2016)
- 제남국제식품박람회(2016.5.20~22) '눈꽃 빙수 따우더 4종' 참여(201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 무기질 보충 '더치 커피(Dutch coffee)' 정형화 기술개발사업 수행 성공(2016)

● 사회공헌활동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센터 '사랑의 일터' 지원(커피 스텝)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하는 카페)
- 지역 부녀회 운영사업 지원(커피 클레방아)
- 농촌체험 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 지원(커피 안빈테기)
- 단오문화축제 지원(커피 단오풍경)

**(주)로스팅컴퍼니로움**

Roasting Company Roum Co., Ltd  
 이동희 대표(010-9981-8409), 070-4118-7081  
 ■ 본사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진리해변길 107 커피로움  
 ■ 중국 지사 : 제남북원찬음유한회사

# MOU Signing Ceremony

Sep 8, 2016 Muong Thanh Luxury Hotel, Vientian



경제사절단으로 라오스를 방문한 이동희 대표가 라오스 SNK의 김보연 대표와 MOU를 체결하고 있다

의 정보를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선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창업자를 위한 카페장비의 사용, 메뉴 레시피 제공 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다. “창업의 진행과정은 개설상담부터 점포개발 및 상권조사, 매장실측 및 전적제시, 시공 및 개점준비, 최종점검 및 보완, 개점 및 사후관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카페 인테리어의 콘셉트를 조화, 환경, 원칙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 대표는 “바리스타 아카데미 를 운영하면서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바리스타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카페창업 멘토링 과정, 바리스타 양성 과정, 커피 마스터 과정, 로스팅 마스터 과정, 특별 바리스타 대상의 아카데미 활용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바리스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이론과 실습으로 실시해 참가자 모두의 만족을 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 “이미 상반기 수출 60,000달러를 기록했다”

이 대표의 노력은 회사의 국내외 매출 등 양적으로 얼마나 성장시켰을까? “지난해에 내수 7억 7,000만 원을 달성했다. 수출도 180,000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예상하고 있는 매출은 내수 10억 원, 수출 260,000달러 규모로 책정하고 있다. 이미 상반기 수출 60,000달러를 기록했다”라고 이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알려준다.

그렇다. 이 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사자후(獅子吼)를 던진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커피를 만드는 것은 물론 카페문화의 정착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유망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동희 대표가 글로벌 마케팅 담당 심종은 이사와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기자, 판단하건대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일까? 기자, 다시금 청년 창업자 이 대표의 대단함을 아니 확연히 느껴지는 장밋빛 미래에 갈채를 보내게 된다. 양양(洋洋)한 전도(前途)를 마냥 기원하면서 말이다. ❖

취재/김종우 기자

라오스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이동희 대표

중국에서 가진 '눈꽃 빙수' 관련 장비의 MOU 체결 장면

중국에 진출한 '눈꽃 빙수' 가맹점의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행사장에서 촬영한 정면



박근혜 대통령과 라오스 대통령의 오찬이 끝난 후, 이동희 대표가 (주)로터윈에 오원석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WHAT/라오스 방문 소감(박근혜 대통령 방문 경제사절단 일행)

### ■ 방문 소감은?

경제사절단은 역시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다. 청년 창업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라오스에서 어떤 회사가 한국의 작은 회사를 알고, 또 서로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게다가 이번 '경제인 1:1 상담'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편함이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의 격려 말씀도 큰 도움이 되었다.

### ■ 상담 결과는?

무려 8개 회사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커피생두의 직수입 개척 및 장비수출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중에 한 회사는 장비와 기술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곧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임을 알렸다. 또 다른 라오스 현지회사와는 200,000달러에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에 한국 전통 디저트 카페 '빙고' 1호점을 올해 11월 중으로 오픈하기로, 내년 상반기에 2~3호점을 오픈할 예정으로 상담을 치렀다.

### ■ 라오스 대통령궁에 초대되었는데?

'라오스 진출 20개 기업 경제인 대표 오찬'에 초대되었다. 박 대통령을 다른 나라에서 만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경제인들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라오스 대통령궁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를 수도 없이 외쳤다.

### ■ 사업상 라오스와의 향후 관계 유지는?

'경제인포럼'에서 라오스의 투자환경 및 관광산업의 현황과 미래발전 가능성, 현재 진출해 있는 기업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회사 입장에서 라오스를 진출함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해소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다시금 이번 경제사절단은 다시없는 좋은 기회였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기회가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다른 중소기업에게도 더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